

제7장

한국양명학 연구

선병삼(승실대학교)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 26개, 유교학 4개, 인문학 4개, 중국어와 문학 1개이다. 아울러 1편의 박사 논문(진함, 『정제두(鄭齊斗) 심학(心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조사되었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양명학>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12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주제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인물별 분류를 말하자면, 첫째는 정제두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강화 양명학과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한국양명학 연구 관련 논문이다.

2. 인물별(주제별) 분류

1) 정제두 관련 논문(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길수	하곡 생리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송명 유학의 생리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진 함	하곡 정제두 심(心) 개념 재해석	孔子學	한국공자학회
3	박현정	하곡 정제두의 지각과 양지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4	정진옥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내관적(內觀的) 신체관과 그 의의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5	서근식	강화학파(江華學派) 역학사상의 전개 양상 연구 (1) -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역학사상의 하락(河洛)·선후천(先後天)적 특징-	울곡학연구	(사)울곡학회
6	한정길	하곡 정제두의 예제 인식에 나타난 문화다원론적 의의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022년도 한국양명학 관련 논문 12편 중에서 정제두를 직접 다룬 논문이 6편이다. 이는 2021년도에 14편 중에서 강화 양명학과(정제두 포함) 논문이 6편이고, 2020년도에는 13편중에서 6편이었는데, 정제두를 직접 다룬 논문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편수 증가와 더불어 정제두 학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정제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양명학자로 강화 양명학파의 태두이다. 현대 연구자들이 정제두 학술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첫째는 주자학 독존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양명학을 선양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양명학과 차별화되는 한국적 양명학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둘째 관점과 관련하여, 정제두 양명학을 주자학과의 친연성에서 독해하는 방식이 한국 학계에 널리 활용된다. 즉 정제두가 양명학을 추송한 양명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양명학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주자학 요소를 가져 왔다는 입장이다.

박길수의 「하곡 생리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송명 유학의 생리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은 하곡의 생리설을 검토한다. 정제두 양지론의 특색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생리설(生理說)이다.

박길수는 정제두 생리설 연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곡의 생리설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그의 사상이 정주 성리학과 왕양명 심학 가운데 어디에 연원을 두고 있는 지이다. ……먼저 그의 생리설의 사상적 연원을 개괄하기 위해서 송대 유학에서 정주와 정명도로 대변되는 송대 유학의 두 가지 생리 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였다. ……하곡의 생리설은 그의 독창적인 개념과 사고를 바탕으로 정주 성리학과 왕양명 심학의 생리설을 종합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하지만 그 종합의 성격이 주요 개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는 비록 왕양명의 생리 사상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정작 그 전체적인 이념과 구도의 측면에서는 정주 성리학이 제시한 생리설의 기본적인 체계와 논리를 근본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정주 성리학의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박길수 논문에서도 한국 학계에서 주자학과의 친연성 하에서 정제두 양명학을 독해하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진함은 2022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제두(鄭齊斗) 심학(心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학자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체로 조선 시대 성리학과 실학을 공부해서 학위논문을 완성한다. 그러나 진함은 조선 시대에 이단의 학문으로 평가되었던 양명학을 연구하여 정제두 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함은 본인 박사논문의 기본 입장을 미리 선언한다. “기존 연구에서 강화학파(江華學派)와 하곡학(霞谷學)으로 정제두의 양명학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본 논문은 유학을 심학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부터 정제두와 왕수인(王守仁)의 학문적 동질성을 검토한다.” 진함이 굳이 이와 같은 기본 전제를 선언하는 데에는 나름의 계산이 있다. 바로 정주학과 양명학의 친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진함의 「하곡 정제두 심(心) 개념 재해석」은 본인의 박사 논문에서 논한 전체로서의 심을 정초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인체에 대한 의학적 심을 설명한다. 『황제내경』의 심, 의학적 심을 중심에 둔다는 접근은 심리일치(心理一致)를 주장하는 정제두 생리설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결국 신체장기인 심을 중심에 두면, 마음의 활동성을 긍정하면서도 취약성을 동시에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진망의 총체인 심, 곧 생리(生理)에서 택기진리(擇其眞理)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시 정주학과 양명학의 친연성을 강화한 입장이다.

박현정의 「하곡 정제두의 지각과 양지」의 주제인 지각과 양지의 관계는 정제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왕양명이 양지가 천리라는 주장을 한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주자학자들은 양지는 지각 활동이기 때문에 불교의 심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일차로 제기한다. 아울러 지각 활동을 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기론의 공리에 맞지 않다고 재차 비판한다.

박현정은 지각과 양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검토한 후에 이렇게 정리한다. “정제두 양명학 이해의 독창성은 지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리 개

념의 제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제두의 양명학 이해는 전체 양명학의 구도 안에서 양명학의 발전 가능한 한 형태이자 조선 양명학의 독창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정의 입장은 앞서 소개한 박길수, 진함의 관점과는 다른 점이 드러난다. 박현정은 주자학과의 친연성에 정제두 양명학의 독특성을 두지 않는다. 박현정은 양명학의 발전 형태로서 정제두 양명학은 한국양명학의 독창적 발전이라고 평한다.

정진욱의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내관적(內觀的) 신체관과 그 의의」는 신체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정제두가 의학적 심을 강조하고, 생리를 제창하고, 이기일원(理氣一元) 등을 강조하는 방식은 주자학 공리와 상당 부분 충돌이 발생한다. 왕양명은 양지를 제창하면서 자신의 이기일원 주장을 정당화 했다. 한편 정제두는 생리, 신(神) 등을 통해 이기일원을 주장한다. 정진욱의 신체관은 바로 이 점에 착안했다. 다만 정제두가 그의 독특한 신체관에 기반을 두고서 이기일원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양지의 이기일원을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신체 논의를 제시한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서근식의 「강화학파(江華學派) 역학사상의 전개 양상 연구(1) -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역학사상의 하락(河洛)·선후천(先後天)적 특징」은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정제두는 역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정제두 학설을 이해하는 첩경으로 평가받는 「존언」 맨 처음이 건괘 논의로 시작하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정제두 학술사상을 이해하는데 역학 연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근식은 이렇게 평한다. “정제두 역학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송나라 도서상수역학(圖書象數易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하도」와 「낙서」는 가운데 있는 5가 중요한 부분이다. 정제두에 있어서 「하도」와 「낙서」의 가운데 5가 중요한 이유는, 한가운데에 ‘태극’이 있기 때문이다. ‘태극’은 정제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心]’과 같은 것이다. ……정제두는 「선후천도설(先後天圖說)」은 선천과 후천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

이다. 본체[體]와 작용[用]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본체[體]의 측면에서는 선천과 후천이 두 가지가 아니며, 작용[用]의 측면에서 비로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제두의 서양천문학의 이해는 『선원경학통고(璇元經學通放)』 등으로 완성되었다. 정제두는 역학저술에 있는 「선후천설(先後天說)」을 먼저 저술하고 보다 발전된 지식을 입수하여 『선원경학통고』를 완성한 것이다.”

체용론은 송명리학의 중요한 범주다. 정이천이 「역전서(易傳序)」에서 제시한 체용일원을 모두 긍정하면서도, 주자학파는 성즉리에 기반을 두고 선체후용(先體後用)을 강조하고 양명학파는 심즉리에 기반을 두고 즉체즉용(卽體卽用)을 강조했다. 양명학과 내에서도 이른바 즉체즉용을 주장하는 현성양지파(現成良知派)와 선체후용(先體後用)을 주장하는 수증귀적파(修證歸寂派) 사이에 대논쟁이 발생했다.

정제두의 선천, 후천, 체용 논의는 그의 양지 논의와 맞물려 있다. 다만 정진옥 신체관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제두가 독특한 자신의 역학관에 기반을 두고서 체용론을 전개한 것인지, 아니면 양지학을 정당화하는 과정과 맞물려 역학의 체용론을 제시한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근래 한정길은 기존 양명학 연구에서 소홀이 다뤄졌던 내용들에 주목하는데, 경제학적 측면, 예치적인 측면 등이다. 한정길의 「하곡 정제두의 예제 인식에 나타난 문화다원론적 의의」는 연속선상에 있는 논문이다.

한정길의 총론이다. “양명학에서는 일체의 문제를 마음으로 환원하려는 성향으로 인해서 제도로서의 예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그런데 정제두는 양명학자임에도 예에 관한 많은 언급들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그가 조선의 독특한 문화, 즉 주자학적 예교 문화의 토대 위에서 학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예제 인식에 나타난 문화 다원론적 의의라고 하겠다.”

2) 이광려(강화양명학파)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천병돈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천병돈은 매년 강화 양명학과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몇 년은 새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곡학과 전승 내력을 밝히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본 「초간본 『이참봉집』에 나타난 이광려 학술사상과 실학정신(2)」 논문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글이다. 작년에 발표한 논문(「초간본 『李參奉集』에 나타난 李匡呂 학술사상과 실학정신(1)」)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한 논문이다.

천병돈의 말을 들어보자. “이광려의 실심은 형이상의 본체로서 도덕심이다. 실심이 생활에서 구현되는 것이 실학이다. 이광려는 실심에 대한 규명보다는 실생활에서 실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었다. 실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심의, 고구마 재배, 가채와 계례를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친민’이다. 친민은 실심이고, 실심은 친민이다. 이광려는 실심을 ‘친민’으로 발현시켰다. 이것이 바로 이광려가 추구한 실학정신이다.”

3) 신작(강화양명학과)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민혜영	石泉 申緯의 『古文尙書』에 대한 견해 연구	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석천 신작(1760-1828)은 『춘추좌씨전례』, 『역차고』, 『상차고』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아버지는 호조참판 신대우(申大羽)이고, 어머니가 정후일(鄭厚一)의 딸이다. 정후일이 바로 정제두(鄭齊斗)의 아들이니, 신작은 정제두의 외증손이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는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으며, 정약용은 신작의 지극한 효도에 감동하여 시를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신작의 학문을 보통 양명학, 실학, 경학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룬다.

민혜영의 「石泉 申緯의 『古文尙書』에 대한 견해 연구」는 그의 경학적 성격을 고찰한 글이다. “경학사에서 今古文論爭은 중요한 주제로, 『尙書』는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경전이다. 宋 이후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古文尙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청대 閻若璩는 치밀한 문헌적 증거를 든 『古文尙書疏證』을 통해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논증하였다. 조선의 학자들도 17세기 이후부터 『고문상서』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신작의 견해를 밝힌다. “신작은 현재의 위 『고문상서공전』이 위작이기는 하나, 전부터 경서로서 계속 전수해왔고 내용 또한 경전에 합당하고 이치가 있다면 폐하지 않고 전승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孔壁에서 나온 眞本은 아니므로 위 『고문상서공전』의 오류를 바로잡고 원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 박은식과 정인보(강화양명학과)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사)울곡학회

한말 양명학자를 논할 적에 늘 등장하는 인물이 박은식과 정인보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박은식을 양명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지만 양명학을 현창한 공로가 상당하다. 정인보를 말하자면 강화양명학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한 인물이고 진정한 양명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정제두에서 시작된 조선 시대 양명학이 정인보에 이르러 대종(大終)을 맺었다고 하는 평가는 허언이 아니다.

김우형의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는 박은식과 정인보를 동일한 궤적 안에 위치시킨다.

김우형의 말을 들어보자. “본고는 박은식과 정인보의 주체와 자아에 관

한 견해로서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에 대해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그들은 한국 근대양명학의 대표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진아론과 실심론을 양명학의 맥락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근현대 한국철학의 형성에 관련시켜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그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들의 자아관과 주체관은 민족적 정체성의 확인과 자국 철학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진아와 실심은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띤다. 과학적 철학적 원리에 대한 탐구와 인식[지각]을 강조하는 점은 진아론과 실심론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그들의 도덕론에 영향을 미치는데, 두 마음의 윤리적 갈등상태가 상정되고 의(意)에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주체는 자유의지를 지니게 된다. 또한 진아와 실심은 존재론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시비를 직관하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자각하는 양지(良知)의 작용에 의해 영원성을 얻을 수 있다.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아론과 실심론은 공통적으로 양명학의 방법을 통해 조선 유학을 비판하되 독창적인 ‘한국철학’으로 전화(轉化)시켰다고 할 수 있다.”

김우형은 박은식과 정인보를 동일한 양명학 궤적 안에 위치시킨다.

5) 한국양명학 연구 총괄 관련 논문(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정길	한국양명학사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분석과 연구 방법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회
2	김세정	하곡 정제두 연구 현황과 과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3	정광휘	『霞谷集』 定本化를 위한 校勘 方案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한정길은 한국양명학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다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양명학을 조망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정길의 「한국양명학사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분석과 연구 방법」은 다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개괄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국

양명학사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1) 한국양명학사에 대한 연구 관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라는 시야에서 한국양명학의 특성과 의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양명학의 정의와 양명학 수용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조선에서 양명학을 수용하고 비판하게 된 그 정치적·학술적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양명학의 존재 양태와 전개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이 요구된다. 6) 유학은 수기치인, 혹은 내성외왕의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이요, 양명학도 유학의 한 형태라는 전제하에 한국양명학도 마음공부와 경세의 두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7)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한국 양명학의 의의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8) 한국양명학 관련 자료에 대한 폭넓은 발굴과 수집이 필요하다.”

김세정은 중국과 한국 내에서 발표된 중국 양명학과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거의 매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김세정의 「하곡 정제두 연구 현황과 과제」는 다년에 걸친 본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괄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제두의 학술적 성과는 『하곡집』에 남아있으며, 1970년대부터 『하곡집』을 중심으로 하여 정제두의 사상과 학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지난 50여 년간 많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정제두에 관한 2019년도까지의 연구 성과는 저서 7종, 원전 번역서 5종, 박사학위논문 15편, 석사학위논문 25편, 학술논문 186편으로, 총 246종에 달한다. ……정제두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1970-1980년대는 정제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토대 마련 시기’이다. 1970년대는 정제두 연구의 ‘과종 시기’라면, 1980년대는 정제두 연구의 ‘발아 시기’에 해당한다. 둘째, 1990년대는 정제두 연구가 뿌리를 잡는 ‘착근 시기’이다. 셋째, 2000년대는 ‘정제두 연구 성장 시기’이다. 넷째, 2010년대는 ‘정제두 연구 심화와 다양화 시기’이다.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제두 관련 연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하곡집』 정분화 작업과 『하곡집』 완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대한 정

제두 관련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학술적 차원에서 하곡학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서가 나와야 한다. 아울러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곡학 관련 대중서가 나와야 한다. 셋째,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시대 문제와 관련하여 정제두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근래 수년에 걸쳐 하곡집 정본화 사업이 양명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정광휘는 「『霞谷集』 定本化를 위한 校勘 方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시한다. 바로 정제두가 참고한 왕양명의 문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정제두가 참고하였던 왕양명 문헌이 어떤 판본인지를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정제두가 참고한 왕양명 문헌은 현재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문헌과 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제두가 참고하였던 문헌에 근거하여 교감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자들은 대체로 1572년에 출간한 『왕문성공 전집(王文成公全集)』을 저본(底本)으로 하고 90년대 이전에 새롭게 발굴한 왕수인의 저술을 최대한 보완하고 교감하여 1992년에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한 현대 중국어 판본 『왕양명 전집(王陽明全集)』을 참고하고 있다. 1572년 판본은 전덕홍이 주도하여 편집한 『왕문성공 전서(王文成公全書)』에 근거하였다. 그런데 정제두 『하곡집』에 실린 글을 보면 『왕문성공 전서』를 참고하지 않고 오히려 황관이 편찬한 『양명선생 문록(陽明先生文錄)』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덕홍은 왕양명이 남긴 자료를 선별하여 편집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양명부자 연보(陽明夫子年譜)』를 편찬하였으나 황관은 여기에 반대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왕양명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게재하여 출판하였다. 아울러 정제두가 당시에 『양명선생 문록』만을 참고한 까닭과 학술환경도 필수적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미 인물별 분류 항목의 정제두 관련 논문에서 밝혔지만, 다시 한번 논

의를 위해 언급한다. 현대 연구자들이 정제두 학술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데, 핵심은 주자학과와 차별성을 부각하느냐 아니면 주자학과와 친연성을 부각하느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꽤 복잡하다. 무슨 말이나 하면, 송명이학을 구성하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같음과 다름을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송대의 주류논쟁을 시발로 하여 현대에도 주왕 논쟁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때 한국 학계에서 퇴계 심학 성격 논쟁이 뜨거웠다. 뚜웨이밍이 퇴계 이동설(理動說)을 모우종산의 즉존유즉활동(卽存有卽活動)과 연결 지으면서 퇴계 심학 성격 논쟁이 본격적으로 발화했다. 퇴계 이황이 주자학자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적 성리학의 정초자로 퇴계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국 주자학과 다른 퇴계 성리학의 특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심학이 부상했는데, 사실 심학은 양명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이런 상황이 정제두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하곡 정제두가 양명학자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적 양명학의 정초자로 하곡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국 양명학과 다른 하곡 양명학의 특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학(性學)이 부상하는데, 사실 성학은 주자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이제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차례다. 먼저 박길수의 「하곡 생리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명 유학의 생리설과 비교를 중심으로-」를 살펴보자.

박길수는 정제두 생리설의 연원을 고찰하기 위해 송대 이학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정명도 식과 정주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명도(程明道)는 생과 생리를 동일시하고 우주의 총체적인 창조성으로 규정하였고, 반면 정이천과 주자는 이기론에 근거하여 생리를 생과 생리(理)를 이원화하고 그 가운데 오직 성리(性理)로서 생리에만 긍정성을 부여하였다.”

그렇다면 박길수가 이해한 정제두의 입장은 어떤가? “하곡은 생성과 존재의 측면에서는 생리를 천지와 만물의 창조적 원천으로 여기지만, 정작 그 생리의 가치와 주체의 실질적 소재를 개체의 심신이 아닌 성리의 본체인 진

체와 진리에 국한했다는 점에서 정주의 이기론과 심성론의 체계에 가까우며 왕양명의 관점과 다르다. 이것은 결국 생리와 성리, 그리고 생과 생리를 철저하게 분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힌다. “이 점에서 하곡은 주요 개념과 내용의 측면에서 왕양명의 생리 사상을 대폭 수용하지만, 정작 그 전체적인 구도와 내재적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정주의 이론들을 근본 토대로 삼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더 나아가 왕양명과 차이점을 논한다. “하곡 생리설의 심학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왕양명의 생리설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생리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왕양명은 생리를 그 자체로 자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반면 하곡은 그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생리의 자족성의 문제는 생리의 주재성에 대한 해명과 분리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일 생리의 자족성을 인정할 경우 주재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성의 자발적인 창조와 자기 평형의 문제로 직결되고, 생리의 자족성을 부정할 경우 주재성의 문제는 생리를 초월하는 상위의 심급에서 정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왕양명은 생리의 주재성을 중(中)과 정(定)이라는 생리의 항상성과 안정성으로 규정하고, 반면 하곡은 생리의 주재성을 진체와 진리로 규정하고 그것을 성리의 통체와 본령의 중주로 정의한 본의이다.”

박길수의 입장은 한국 양명학 정초자로서 정제두를 자리매김하면서 주자학과의 친연성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정제두는 양명학자다’는 명제를 출발 전제로 삼는다면, ‘정제두는 양지를 천리로 삼았다’는 후속 명제도 긍정되어야 한다. 만약 1번 명제와 2번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박길수의 입장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현정은 양명후학 중에서 이른바 수증파(양명우파)로 불리는 섭표로 박사학위는 받은 신진연구자이다. 박현정이 「하곡 정제두의 지각과 양지」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종래 정제두의 지각에 대한 연구는 정제두가 비교적 주자학적으로 양명학을 이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본문은 지각에 대한 정제두의 인식이 과연 주자학적이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양명후학의 지각관과 정제두의 지각관에 집중하여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살펴본 후, 하곡집(霞谷集)의 내용을 통해 정제두 지각관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제두의 지각에 대한 이해가 양명후학의 이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주자학적으로 양명학을 이해한 것이 아닌, 정제두 양명학 이해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즉, 본문은 지각에 대한 이해가 정제두 양명학 이해의 특질을 살펴보는 하나의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 박현정의 주장을 따라가 보자. “우리는 앞 절에서 정제두의 지각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제두는 현상의 지각 A는 일반적 의미의 감각지각 활동이며, 지각 B는 양지본체가 발현된 지각임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것이 다시 사물의 이치에 대비되는 인간의 이치인 ‘생리’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무슨 말이나 하면 “인간의 생리는 지각 A의 형태이지만 그 본질은 양지의 본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지각 B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 마음의 신명함은 이러한 지각 B의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활발하게 약동하는 생리라고 말한다.”

이제 학계에 널리 퍼진 진리와 생리를 구분하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한다. “진리는 지각 A와 지각 B의 합인 생리 중에서 지각 B만을 진리로 나타낸 생리의 상위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상의 지각 측면에서는 진리는 항상 생리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둘은 사실상 하나의 개념이다. 따라서 진리를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으로 상정했다기 보다는 현상에서의 양지 본체의 순수함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박현정은 정제두 생리설의 의의를 이렇게 총괄한다. “정제두 역시 지각 A와 지각 B를 구분하는 한편 지각 B는 언제나 지각 A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지각 B는 본질상 양지의 본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자는 양명학 전반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후자는 양명후학의 현성과 수증과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정제두의 독창성이 나타나는 부

분은 바로 이러한 지각 이해를 다시 자신의 언어인 생리(生理)로 나타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도 역시 생리설이 정제두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꼽아왔지만 지각론의 관점에서 생리라는 개념을 분석해야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진의가 더 잘 드러난다고 본다. 인간의 지각작용과 거기에 포괄되어있는 양지의 현현(顯現)은 내 마음의 활발한 이치인 생리라고 보는 것이다.”

박길수와는 대비되는 견해를 알 수 있다.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 18년도는 19편, 19년도 18편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도 13편, 21년도에는 14편, 22년도에는 12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경향은 비단 한국 양명학 논문 편수만의 현상은 아니다. 중국 명청대 논문 편수도 줄었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하곡학파)의 비중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제두 학술사상을 중심으로 발표된 논문 편수가 예년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겠다.

2022년도 조사 논문 중에서 이른바 문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2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정진욱의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내관적(內觀的) 신체관과 그 의의」를 추천한다. 신체관이라는 관점이 신선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주제에 맞게 잘 녹여냈다. 둘째는 진함의 「하곡 정제두 심(心) 개념 재해석」을 추천한다. 진함은 정제두가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바탕을 두고 심(心) 개념에서 심장(heart)의 의미를 강조하는 특성을 상세하게 고찰했다. 정제두 심학에 자주 등장하는 신(神), 정(精), 기(氣), 혈기(血氣) 형기(形氣) 등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주었다. 「존언」에 나오는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매번 지적인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